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

강 오 식

자유기고가

충청북도의 최북단에 위치한 제천시는 북쪽으로 태백산맥이 가로놓여 있고 동과 남은 경상북도와 경계지점에 소백산맥이 자리하고 있다. 이 두 산맥에 장막처럼 둘러싸여 해발 300m 이상의 고원분지에 위치한 제천시는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이다. 시의 남쪽으로는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먼 옛날 한강을 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남긴 선사 유적이 점말동굴 등에 남아 있다.

제천은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산맥의 '거드랑이' 좁은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높은 지대에 둔다. 제천 지구는 시 단위로 따질 때는 "지세가 가장 높은 곳"이라는 조선 시대의 정인지가 한 달이 파장이 아닐 만큼 충주 지구보다 평균 높이가 100m나 높다.

청풍명월의 본고장인 이 곳은 선사시대로부터 남한강을 이용한 수운이 발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문물이 번성했던 유

서 깊은 고장이다. 오늘의 제천 땅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을 때는 내토군 또는 내제군이라고 불렸으며, 이어서 신라가 차지했을 때에는 내제군이라고 불렸다. 고려 시대에는 제주군이라고 불렸고 그 뒤에 원주군에 딸렸다가 조선 태종 때에 와서야 비로소 제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영토 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졌던 까닭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적 요소들이 오늘날 민간신앙에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체계가 활성화되어 내륙의 교통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한말에는 을미의병의 발상지로 유명하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육로교통의 활성화와 더불어 태백선, 충북선, 중앙선이 교차하는 사물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현재 인구 15만 여명의 제천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중부내륙의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